metro

메트로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제2655호

World p/06

동성애자 첫 언급한 오바마

Entertainment p/16

싸이 지금부턴 삼바 스타일

재형저축 3월부터 가입한다

NEWS p/03

'알짜 품은 미래부' 공룡부처로

NEWS p/04

택시 다음달 20일부터 올스톱

NEWS p/02

News p/03

도피생활 지쳐 자수한 '꽃뱀'

metro

메트로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제2655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4

송선미 데뷔 첫 사극 나들이

"개 잘렸대~ 19일동안 결근 했다네" "출근하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휴직했대" "인나와서 임신 5개월 여사원만 고생했다네"

직원 겨냥 치졸한 '헛소문 공작'

신세계 이마트 직원사찰 '일파만파'

'휴게실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퍼뜨릴 것' 구체적 문구·행동강령까지 만들어 퇴출 유도

"전수찬인가, 걔 잘렸대~ 19일 동안 무단결근했다며?"

"점포에서는 계속 출근하라고 했다는데 일방적으로 아프다고 휴직했대~"

"근데 그렇게 아프다는 애가 매일 1인 시위하고 다녔대~ 그 먼 광주까지 가서."

"전수찬이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임신 5개월 여사원이) 아픈데도 혼자 행사 준비 다 했대~"

최근 한 언론매체가 입수해 보도한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의 내용 중 일부다. 이마트 인사담당기업문화팀 이모 과장이 지난해 11월 각 지점 점장과 인사·지원팀 간부에게 보낸 e메일 '전수찬 징계 해직 관련 임소문 자료'에는 구체적인 임소문 문구까지 적혀있었다. 전수찬은 지난해 11월 해고된 이마트 노조위원장이다.

자료에는 '강압적이고 주입적인 느낌을 사원들이 가져선 절대 안 된다', '흡연실이나 휴게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할 것', '자연스럽게 임소문이 나서 당연히 잘릴 것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면 될 것' 등의 주문까지 쓰여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인 전 위원장은 "날 해고하는 이유가 정당하면 대놓고 알리면 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열한 방식으로 나를 몰아세웠다"며 "같은 직원으로서, 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 측은 "이마트의 이 같은 노무 관리는 동료를 배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폭력 혹은 회유라는 전통적인 노무 관리보다 더욱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 동료 배신 부추기는 노무관리 충격

신세계그룹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작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이 연달아 알려지면서 이제 이마트를 넘어 신세계그룹과 계열사의 일반 직원들까지 술렁이는 분위기다.

신세계 계열사에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랑 그거(사찰 관련 보도) 봤냐? 우리도 해당될까? 등을 얘기했는데 그마저도 조심스러워 잠깐 말만 꺼내고 끝냈다"고 씁쓸해했다. 또 다른 B씨는 "세련된 회사 이미지가 자랑스러웠는데, 노조 때문에 직원들을 뒷조사해 문서까지 남기고 있다니 상당히 놀랐다"며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하니 살어 답답하다"고 전했다. 관리자급인 C씨는 "곪아 터질 게 드디어 도마에 오른 셈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불법사찰 수사 촉구 이마트노조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등 5개 단체가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의 노동조합 탄압과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갑형기자 leekh@

동료들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 분열시키고, 특정인을 겨냥한 비난을 퍼뜨려 왕따를 시킨 뒤 조직에서 내치는 등의 수법은 후유증도 크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동료들을 이간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외상과 근골격계 질환 같은 육체적인 병까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회사 때문에 서로 불행해지는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감시하는 신세계의 행태에서 노예노동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자기 사원이란 이유로 회사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신세계 측의 인식이 끔찍하다"며 "우리가 이마트에 가는 건 범죄 소굴로 들어가 유유히 쇼핑하는 꼴로 쇼핑하는 동안 직원들은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순기자 hcjean@metroseoul.co.kr

신세계 '공포의 면담' 사건

음료수 마시는 동작까지 체크해 직원 5등급 분류

"면담 좀 할까요?"

신세계에서 면담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가 아니다. 면담을 하러 사무실 문을 열 때부터 표정과 행동이 관찰·분석되고 마지막엔 노조를 대하는 성향에 따라 등급이 분류된다.

22일 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신세계의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 문건 속에 소개된 '효과적인 면담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세계 측은 친회사적인 가족(KJ) 사원의 밀착 감시와 함께 면담을 통해 직원들을 A급(주동세력), B급(비주류로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 C급(불분명하나 NJ(노조)에 대해 긍정적), D급(현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행동), S급(외부에 의한 문제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으로 분류할 것을 지시했다.

내용을 보면 피면담자가 앉는 자리부터 면담자가 음료수를 건네는 작은 행동과 주변에서 시작해 핵심으로 접근하는 질문의 순서까지 치밀하게 계산돼 진행됐다. 면담 내내 행동언어를 관찰하고 심리 상태를 파악해 기록했다.

◆효과적인 면담 매뉴얼 중 일부

*피면담자가 많은 말을 하도록 개방형 질문을 실시

›어떻게 시작되면서 매장은 요즘 어떻습니까?

* 모르겠다 or 없다 식의 답변을 할 경우 NJ(노조)가 제기됐거나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

→듣자하니 근속이 오래된 분들과 새로 들어온 분 사이에 대해 말들이 있는 것 같던데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요?

→현장의 정서를 알아야 밝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사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기사 2면에 계속

빛나는 마이스터高 졸업장

올 취업률 92% 10명 중 2명은 대기업 입사

다음달 졸업을 앞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의 절반이 봄학을 듣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 취업률은 92%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전문반 690곳의 졸업 예정자 12만3317명 가운데 48.5%(5만9753명)가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대학교 진학을 제외한 순수 취업 희망자들의 취업률은 76.5%였다.

학교 형태별로는 마이스터고가 92%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는 49.4%, 종합고 전문반은 28.8%였다.

취업이 확정된 학생들의 63.5%(3만7740명)는 중소기업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기업 21.7%, 공공기관 4.8%이 뒤를 이었다.

직무 분야는 생산직이 42.2%, 기술직 20.7%, 사무직 17.1% 순이었다. 초봉은 1200만에서 1600만원 사이가 제일 많았고 1600만~2000만원은 27.8%, 2000만~2500만원은 15.1%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충북(56.7%), 대전(52.8%), 경북(52.3%) 등 지역 산업이 발달한 곳의 취업률이 높았다. /장윤희기자 uniyoon@

설 택배 28일 이전에 보내세요

물량 지난해보다 12% 증가

설 선물을 택배로 보내려면 28일 이전에 마무리해야 제때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2월 9~11일)은 연휴기간이 짧아 고향집을 찾지 않고 택배로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택배 물량이 작년보다 약 12% 증가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28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을 설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 콜센터 상담원과 짐을 싣고 내리는 등의 배송 지원 아르바이트 인력을 평상시의 20% 이상 늘리고 협력업체 차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인당 年 56회 택배 이용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내 ?업창구에서 시민이 우체국 택배를 접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한 해 평균 56차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선물 택배는 28일 이전에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훈기자 ssh@

李대통령 "국제 규범에 안맞아" 택시법 거부권 행사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 택시가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월30일 영남권-2월1일 호남권>

택시 일단은 순차파업

법안 재의결 안되면 하루씩 운행중단 후 다음달 20일부터 전국 올스톱

정부가 '택시법'을 최종 거부함에 따라 택시업계가 권역별 운행중단을 결의했다.

택시업계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30일부터 지역별로 한시적 운행중단에 들어간 뒤 국회 재의결이 안되면 다음달 20일부터 무기한 운행중단하기로 했다.

30일로 예정된 합동총회 일정에는 영남권, 다음달 1일에는 호남권 등 지역별로 운행을 멈춘 뒤 다음달 20일 서울권 운행중단 이후 전국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 취지와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 범주에 택시가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법이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법 취지에 어긋나고, 외국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는 점, 여객선·비행기·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등으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신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체입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측은 "대체입법은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을 담았을 뿐 새로울 것이 없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한편 국회는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집단행동은 향후 국회에서의 재의결 추이를 봐가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채윤오기자 e cyco@metroseoul.co.kr

면담 끝나면 나도 모르게 C급 사원 꼬리표

▶기사1면서 계속

*피면담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NJ(노조)식 의도된 갈등 유발 질문을 할 경우 정확한 설명 내지 설득조의 답변은 피할 것. 역질문으로 피면담자의 의사 확인 'I agree'가 아닌 'I see' 메시지 전달

'왜 갑자기 면담을 하시죠?'라고 물을 경우

→왜 면담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이 사원을 면담하는 데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노동조합 때문에 면담하시나요?'라고 물을 경우

→왜 노동조합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건가요?

→저는 현장의 애로를 청취해 해소하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 면담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힘들게 몸으로 일하는 건 판매직원인데 저희들이 받는 봉급은 비교도 안 되는데요?'라고 물을 경우

→판매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실적에 대한 고민, 고객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시죠.

*회사를 믿고 함께하는 사원은 반드시 보호한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면 함께 갈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것

→사원과 회사는 동반자입니다. 집안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할 때 후유증도 없고,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상황은 묻지 않겠지만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에 상응한 분명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랍니다. /한용수기자

은행도 모르는 기프트카드 발행 피해 속출

기업 행사 사은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프트카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전적 피해도 우려돼 카드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주유상품권을 15% 할인해 판매하면서 기프트카드인 'KB국민 프리셋카드'를 활용해 충전 및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해당 업체에 중단을 요청했다. 이 카드는 사용할 금액을 미리 카드에 충전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쓰는 충전식 선불카드다.

사기업체는 국민카드와 제휴 관계가 아니면서도 주유상품권 15%를 할인한다면서 국민카드와 협력업체라고 선전하고서 'KB국민 프리셋카드'를 주유상품권과 같이 보내고 있었다. 국민카드는 해당 주유상품권 발행업체와 제휴한 사실이 없고 주유상품권 충전과도 무관해 허위광고라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고객에 긴급 공지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를 위탁 판매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필요하고 국민카드와도 협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이 업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해당 업체에 국민카드 협력업체라는 문구를 빼도록 했으며 이미 배포된 문제의 기프트카드도 대부분 회수했다"고 밝혔다. /김서영기자 lazyhand@

인사 청탁 사실일까?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감에게 교육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속 인천시의원의 2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도중 지역교육지원청의 오 과장에게 인사 청탁 결과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기일보 제공

재력가 해외로 유인해 15억 뜯어낸 '꽃뱀'…5년 도피생활 지쳐 자수

재력가를 유인해 거액을 뜯은 꽃뱀 여성이 도피생활에 지쳐 자진 귀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배모(47)씨를 사기·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 13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배씨는 지난 2007년 7월 골프여행을 가자며 재력가 A(48)씨를 중국 산둥성 한 대의 호텔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해 사기 도박을 벌여 8억여 원을 갈취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15억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국내 유명 골프클럽을 돌아다니며 돈이 많은 남성을 상대로 친분을 다져 함께 중국 골프여행을 가자고 꾀었다. 이후 일당은 약을 탄 음료수를 피해자들에게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도박판을 벌이거나 미리 맞춰놓은 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5년이 넘는 중국 도피생활에 지쳐 이번달 초 입국해 경찰에 붙잡혔다. /정윤희기자 unique@

재형저축 3월 '부활'

7년 이상 유지하면 소득세 14% 면제…서민 재테크 인기 예고

현재 30~40대 직장인들의 아버지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재테크 수단인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된다. 시오정세대 월급쟁이들이 되기 전에 쏠쏠한 재테크 수단을 하나 더 갖게 되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거의 마무리했으며 조만간 확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논의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등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께 은행권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형저축 상품은 적금,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금융 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꼴이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라면 2015년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된다. 가입 이후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담당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가입 이후에도 소득 확인 절차가 남아있다.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해지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형저축으로 연간 5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태술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군통령과 찰칵 오늘은 계란 날 군부대 행사에서 섭외 1순위를 차지하며 '군통령'으로 불리는 걸그룹 나인뮤지스가 22일 국내 최초로 파주 1사단 전방부대에서 쇼케이스 무대를 연 가운데 장기자랑에서 1등을 한 장병이 나인뮤지스와 춤을 추고 있다. /뉴시스

주택연금 다음달 신청자부터 月수령액 2.8% 줄어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현행보다 평균 2.8% 줄어든다.

한국주택공사는 22일 이같이 밝히고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나 이달까지 신청하는 고객의 수령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간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신청하면 3만3000원(3.2%) 줄어든 100만6000원을 받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줄이게 됐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박성훈기자 zen@

3월20일부터 은행 대출 가산금리 한눈에 비교

앞으로 두 달 후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가 낮은 은행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20일부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함께 가산금리 비교 공시 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말 각 은행의 전산 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 공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 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3개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 중소기업대출 3개다. 공시 주기는 매월 20일이며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볼 수 있다. /김문기기자

헬기로 사람 구하는 119 22일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저수지에서 얼린 물에 사고 구조 훈련에서 119항공구조대가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입 유기농차 농약 검출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유기농 차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차류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기농 표시 중국산 2개 제품에서 비펜스린 등 농약 성분이 최소 2종에서 많게는 7종까지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제품은 온난유지 푸열차 백년세랍, 유기농 진주 자스민차 2종이다. /채름희기자 sribb@

10년후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 부양

10년 뒤에는 젊은이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의 경우 젊은이 6명당 노인 1명이다.

2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통계청 유엔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 '노년부양비'는 16.7%로 추정된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년(65세 이상) 인구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올해 노년부양비 16.7%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6.7명을, 즉 젊은이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 젊은층의 부양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크다.

핵심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를 파악한 이른바 '실제 노년부양비'를 보면 이미 젊은층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다. /박성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54>

글·그림 박상철

‘양파’ 이동흡 고? 스톱?

새누리당 후원 또 드러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힘들 듯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국회 청문회장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07년 9월 정치후원금 기부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동일인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영수증 내역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이 몰랐다고 거짓 해명한 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찰 기부금이 총 6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가짜 영수증 발급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낙산사 봉정사 은해사 조계사 등 20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 열심히 다니고 항상 시주도 했다"며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는 부모님이 다니던 절 스님의 제를 지내주기도 해 조금 많을 정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23일 청문특위에서 채택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부적격 보고서 채택 혹은 채택 거부를 주장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야당의 비판을 '발목잡기'식 구태로 몰아붙였다.

/김유리기자 grace1@metroseoul.co.kr

미소 짓는 연수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오른쪽)와 강석훈 위원(왼쪽) 등이 22일 정부 직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공룡’ 미래창조과학부

과학 ICT 총괄 우정사업도 전담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모두 이관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안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부처 간 업무 조정 내용을 발표했다.

미래부에는 2명의 복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토록 했으며 옛 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와 방송통신 진흥 분야, 디지털콘텐츠 관련 업무 등을 이관해올 계획이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항만, 해운·수산을 유통 기능 등을 넘겨받는다. /김유리기자

국민 10명 중 6명 “박 당선인 잘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업무를 잘한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569명(표본 오차 ±2.5%포인트, 95% 신뢰 수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박 당선인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9%, '보통'은 9%였다.

박 당선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공약에 대한 실천 약속을 지킨다'(12%), '사끄럽지 않고 신중하다'(9%), '탕평 인사'(8%), '신뢰 믿음이 간다'(8%) 순이었다.

리얼미터가 같은 기간 전국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 오차 ±2.0%포인트, 95% 신뢰 수준)에서는 63.6%가 박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김유리기자

30대남성 인수위 침입 “박 당선안 사랑합니다”

30대 남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물에 무단 침입해 기자회견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자신을 1983년생이라고 밝힌 이모씨는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단상에 서더니 "모든 악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랑합니다"고 답했다. 입구를 어떻게 통과했느냐는 질문에는 "걸어서 왔다.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명문대 출신 방송대 몰린다

정시모집 1500명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신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방송대(총장 조남철)에 따르면 지난 10월 마감된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 7만3126명이 지원했다. 이 가운데 서울 유명 대학 출신은 15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여 명 증가했다.

평생교육 열풍 속에서 40~50대 지원자는 3만392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219명이나 늘었다.

의사 손정구(29)씨는 "방송대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경제학과 법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다"면서 "등록금이 한 학기 35만원 선으로 학비 부담이 적고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엄종흥 대외협력과장은 "지난해 11월 KBS2 다큐멘터리 3일에 소개된 방송대의 모습이 고무적인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정시 합격자 발표는 30일이며 미달 학과에 한해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대 홈페이지(www.knou.ac.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1577-2853 /장윤희기자 unique@

"나를 위해서는 돈쓸데가 없다"

게이츠, 소아마비에 2조

"먹고 입을 ... 이 충분한 나를 위해선 더 이상 돈 쓸 데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구들 ... 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려 한다."

21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빌 게이츠(57·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는 향후 6년간 18억 달러(약 1조9208억원)를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 운동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6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을 지닌 빌 게이츠는 부인 멜린다(48)와 부부 명의의 자선 재단을 설립해 이미 280억 달러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와 나는 우리가 운 좋게 가진 부를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줄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했다"며 "우린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소아마비 예방접종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서비 편집인	김형 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국장 직대	김윤 일
서울광고협의	02)721-9851,3
부산광고협의	051)359-2100
독자센터	02)721-580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을 마친 뒤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자 조 바이든(오바마 대통령 오른쪽) 부통령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쟁 끝나고 경제 살아날 것"

"미셸 '바가지 머리' 솔직히 별로"

○ 할리우드의 패션 비평가 조안 리버스는 취임식을 앞두고 미셸 여사가 새로운 헤어 스타일을 선보인 것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리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셸 여사가 선보인 앞머리를 가지런히 잘라 내려뜨린 뱅 스타일(일명 바가지 머리)이 4년 내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분거리 퍼레이드 65분 걸려

○ 오바마 대통령을 태운 대형 캐딜락 리무진이 이날 취임식장인 의회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약 65분이었다. 평소 교통 신호에 걸리지 않으면 5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거리를 거북이 걸음으로 1시간 넘게 걸려 통과한 셈이다.

오바마 1기 지지도 최하위권

○ 오바마 대통령의 1기 임기 업무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갤럽이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1기 임기의 평균 업무 지지도는 49.1%로 50%를 밑돌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미 대통령 중 지미 카터와 제럴드 포드에 이어 꼴찌에서 셋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취임 기념 무도회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활짝 웃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선미기자

2기 취임식 연설로 본 '오바마 2.0'은 통합·자신감

미국·국민·국가 반복… 'gay' 처음으로 언급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공식 취임식을 갖고 집권 2기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에서 국민적 단합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을 호소했다. 그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one nation, one people)'을 주제로 약 1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아메리카(America)' 혹은 '아메리칸(American)'이라는 단어를 19차례나 반복했으며 국민(People)과 국가(nation)도 10차례 이상 언급하며 애국심을 자극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ga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 인권 문제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랜 전쟁은 끝나가고 있고, 경제 회복은 시작됐다"며 집권 2기 국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먼저 미국의 번영이 중산층에 달렸다면서 "일자리 창출 외 중요성을 강조한 뒤 세제 개혁과 교육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나라를 세운 세대를 돌보는 것과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거부한다"면서 첫번째 임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취임식에 참석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부부가 동석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선미기자 seonm@metroseoul.co.kr

가까울수록 더 건강하고 맛있는
'국산돼지고기' 한돈으로 선물하세요.

총 6,800만원 상당의 순금과 국산돼지고기
한돈선물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응모 기간 2013 1 9 - 2 15 당첨자 발표 2013 2 26

1등 순금 37.5g 1명 2등 순금 18.75g 5명
3등 순금 3.75g 100명 4등 한돈선물세트 500명

응모방법
한돈 2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인증샷을
#6630으로 전송 또는 dream.han-don.com 에 응모

sunjin 도뜰포크 S FOOD 청미원 돈마루 사조남부햄 하나가득 목우촌

전화상담 1577-9348 온라인 상담 dream.han-don.com

KOSPI: 1977.45 (1/16), 1974.27 (1/17), 1987.15 (1/18), 1981.66 (1/21), 1990.52 +8.86 (1/22)

KOSDAQ: 507.58 (1/16), 506.35 (1/17), 512.24 (1/18), 514.68 (1/21), 516.51 +1.83 (1/22)

해외증시	
Nikkei (일본)	10709.93 (-37.81)
Hang Seng (홍콩)	23655.79 (+66.08)
Shanghai (중국)	2315.14 (-13.08)
Dow Jones (미국)	13649.70 (+53.68)

EXCHANGE RATE	
달러	1061.50
엔(100)	1191.22
유로	1418.06
위안	170.65

정기예금 12조 증발

금융종합과세 대상 우려 증시·부동산으로 대이동

저금리 시대에 이자 한 푼을 더 받기 위해 들었던 정기예금이 대폭 줄어 주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이후 정기예금에서 12조원 가까이 빠져나갔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저금리 기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발표로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11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2월 중에만 9조4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지난해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615조2000억원이다.

대탈출 러시가 이뤄진 정기예금은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기간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2조5000억원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기예금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으로 전환된 것을 시사한다. 시중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2%대인 점을 고려하면 이 뭉칫돈들은 투자대상이 나타났을 때 활용하기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원화예수금 잔액은 1039조3000억원으로 연중 45조9000억원 늘었다.

/김지성기자

전업주부 580만 '맞벌이 별따기'

지난해 40대 여성 고용률 하락 영향… 20대 취업자 4만명 감소

전업주부는 늘고 20대 청년층의 취업자는 줄고 있다. 경기침체가 이어진 탓이다. 주부들의 경력단절과 청년 실업자의 양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향후 구직에 나설 때 시간제 근로 등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저임금 구조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 내수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중산층 붕괴 가속의 요인으로도 주목된다.

2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집안일만 하는 지난해 비경제활동(비경)인구 중 가사 종사자가 59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3000명(2.1%) 늘었다. 월별로는 농한기인 겨울철을 중심으로 6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15세 이상 인구는 14.4%이었고, 여성으로만 따지면 27.5%에 해당한다.

일자리가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비경 인구는 가사, 육아, 연로, 통학, 취업 준비, 쉬었음, 심신장애 등으로 구성된다. 가사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무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연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육 부담이 없는 순수 전업주부인 셈이다. 여성이 583만5000명으로 대부분(98%)이다. 나이로는 40~50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사 인구 증가에는 최근 40대 여성의 고용률 하락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취업 IMF이후 최대폭 감소

20대 후반 취업자 수는 15년 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날 통계청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명 감소했다. 특히 25~29세가 12만9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2만 명) 이후 최대치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의 시간제 근로자수가 43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며 "시간제 근로자 수 급증세는 젊은 세대의 저임금화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상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설빔은 역시 한복" 22일 롯데마트는 설을 앞두고 다양한 아동 한복을 선보였다. 현 월말 3만5000원에서 5만1000원까지 판매하며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복주머니를 증정한다. /안형뉴스

60대 연령층 실업률도 고공행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대로 뛰어오른 6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직후인 2010년(2.4%)에 전년(1.4%)보다 1.0%포인트 급등한 뒤 하락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60대 연령층의 이 같은 실업률 지속 원인으로 일자리 수요 급증을 꼽았다. 60대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한정된 반면 구직을 원하는 60대 이상 고령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고용 환경이 갑자기 악화됐다기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져 구직에 나선 노인들이 늘었다"고 풀이했다.

/박성훈기자 zen@

서울 등록 승용차 10대중 1대 '수입차'

서울에 등록된 일반 승용차 중 수입차 비율이 10%에 근접했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다목적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서울에 총 190만930대가 등록돼 있으며 그 가운데 수입차는 17만9770대로 9.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일반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10대 중 1대꼴에 다다른 셈이다.

전국에 등록된 일반 승용차는 총 1106만5328대, 그중 수입차는 60만3745대로 5.5%에 해당한다.

/박성훈기자

삼성생명의 어린이 만화 '사랑을 만나요' 시리즈로

삼성생명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가족, 친구, 이웃 등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만화 시리즈 '사랑을 만나요'를 발간한다.

'사랑을 만나요'는 ▲가족을 사랑해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자연을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등 총 5개 시리즈로 구성된다.

각 시리즈는 어린이 캐릭터인 사랑이, 사랑콩 형제가 생활 속 에피소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랑의 의미를 배워가는 과정을 만화 형식으로 담게 된다.

책은 전문가인 '피리 테일(정한제)'이 스토리 작성에 참여해 이야기의 일관성과 구성력을 높였다.

다음도 네이버처럼 게임한다

온라인 신작 '검은 사막' 공개… 검색포털 이어 게임포털 진출

검색 포털 다음이 온라인게임 서비스에 나선다. 사실상 게임 포털 병행을 선언한 것이다.

한게임을 통해 게임 포털 역할을 해온 네이버처럼 다음 역시 게임 퍼블리싱이라는 새로운 사업 행랫불을 장착하는 셈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2일 신작 온라인게임 '검은 사막'을 공개하고 "다음의 간판 게임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검은 사막'은 국내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가 개발한 대작 MMORPG로 두 나라가 사막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신작은 7월에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은 현재 스마트폰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바게'와 함께 기존 게임을 채널링(동일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여러 채널 중 하나가 되는 것)하는 수준에서, '검은 사막'으로 일약 메이저 게임 배급업체로 자리매김했다.

다음이 이처럼 대작 온라인게임 배급에 나선 것은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다.

채널링 서비스를 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해한 다음이 자체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이다. 같은 게임 제작사 입장에서도 수익 배분 증대, 광고 마케팅비 절약, 상호 보완적 커뮤니케이션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허진영 다음 게임서비스본부장은 "모바일이 성장하면서 카카오나 라인의 영향력이 커지듯 PC 온라인 역시 포털이 퍼블리싱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20~40대 남성 유저층이 많아 '검은 사막' 소비층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네이버, 다음이 게임 포털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의 강자인 넥슨닷컴, 플레이엔씨, 넷마블, 피망과 같은 게임 포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게임 규제법안 관련 업계 "지스타 보이콧"

게임업계가 모처럼 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법'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법' 등이 철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들 법안을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며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등 규제로 게임업계의 인력이 감축되고 성장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나 업계 의견 수렴도 없이 추가 규제 법안이 발의돼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성훈기자

손연재 '광고퀸'

런던올림픽 선수 분석 7개사 10개 출연 최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최고 광고 스타로 떠올랐다.

22일 국내 광고대행사인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발표한 런던올림픽 이후 올림픽 스타 활용 경향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등장하는 광고물은 총 44편으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36편보다 22% 늘었다.

반면 광고모델로 기용된 선수는 박태환, 손연재, 기성용, 이용대, 장미란, 양학선 등 6명으로 베이징올림픽 당시 11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모델당 평균 출연 광고 수는 7.3개로 베이징올림픽의 3.3개보다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수의 스타에 광고가 몰리는 집중 현상이 눈에 띄게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연재는 7개 브랜드의 10개 광고에 출연해 역대 올림픽 스타 가운데 김연아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은 스타로 부상했다. /박성훈기자

소외 청소년 돕는 'KB 대학생 멘토' KB국민은행은 소외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 멘토 15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대학생 멘토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300명의 청소년 멘티들에게 학습지도, 문화활동, 정서지원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김지성기자

주택시장의 역전… 매수자가 '갑'

지난달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면서, 이들이 거래에서 '갑'의 위치에 올랐다.

22일 국민은행이 전국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수·매도세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12월 서울 부동산 거래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답변이 0%를 기록했다. '팔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많다'(매도세 우위)는 답변은 91.9%에 달했다. 나머지 8.1%는 '매수세와 매도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매수세 우위가 0%로 나타난 것은 2000년 1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세제 들어서는 매수세가 차츰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자 중과세 회피 매물이 사라져 강남구 등 일부에서는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환갑 넘어도 암보험 가입 OK!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61~75세 무심사 가입 상품

라이나생명보험이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한 간편심사상품이다.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단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비교적 치료가 쉽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과 갑상선암은 진단 확정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080-951-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화제의 분양

계약금 환불·임대수익 보장 '안심'

동두천 지행역 역세권의 '동아 더 프라임' 분양중

동아건설의 동두천 지행역 '동아 더프라임'이 수요자를 대상으로 계약금 환급 보장제와 임대수익 보장제(일부 세대)를 동시에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금 원금 보장제란 입주 시점에서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가 환불을 원하면 조건 없이 100% 전액 환불해주는 방식이다.

임대 수익 보장제는 계약자가 잔금 완납 후 임대 수익을 월 150만원씩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무상 확장(일부 세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행역 '동아 더 프라임'은 동두천 지역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지행동 역세권에 위치하며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492세대(84㎡ A타입 195세대, 84㎡ B타입 87세대, 84㎡ C타입 210세대)로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의 중소형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문의 031)855-3106 /박성훈기자

토니모리, '무알코올' 허위광고 정지처분

알코올 성분을 제품에 넣고도 무(無)알코올로 광고한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광고 정지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코올 무첨가'라는 광고와 달리 토니모리 제품 4종에 알코올의 일종인 세틸알코올이 들어 있었다며 이를 제품에 대해 2개월 광고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토니모리 브랜드 플로리아 뉴트라 라인의 토너, 에멀전, 에센스, 크림 등이다.

세틸알코올은 화장품의 유화제로 사용되는 지방알코올이다. 광을 주거나 결점을 감추기 위한 메이크업 제품에 주로 쓰인다. /사치영기자

100자 브리핑

생활용품기업 P&G가 창립175주년을 맞아 '일상의 기적(The Everyday Effect)'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의 일상을 바꾼 혁신적인 제품에 관한 스토리를 전달한다. 페이스북(facebook.com/ThankYouMomKorea)에서 캠페인 동영상을 공개했다.

CJ오쇼핑은 자체 란제리 브랜드 '피델리아'의 신제품 12점을 지난 19일부터 파리에서 열린 국제란제리쇼에 틀품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리란제리쇼 무대에 진출한 건 국내 홈쇼핑 업체로는 처음이다.

농심이 녹용 성분을 넣은 기능성 커피믹스 '강글리오 커피'를 오는 28일 출시, 커피믹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했으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글리오사이드 성분을 함유했다.

사장을 움직이는 싱글컨슈머! 농산물마케팅도 변해야 한다

1인가구 지갑 여는 '3S 법칙'

요즘 골목마다 신축 건물은 죄다 원룸빌이고, 전자매장에는 싱글족을 위한 미니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홀로 가구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결국 네 집 중 하나는 1인 가구라는 뜻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도 '싱글 컨슈머'를 겨냥한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예로 대형 할인점마다 소용량 포장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필자가 종종 찾는 대형마트는 생선회가 6~7조각 들어 있는 1인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업도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먼저 나홀로 가구의 소비 성향에 맞춰 스몰(Small), 심플리(Simply), 스피디(Speedy) 즉 '3S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의 농산물 포장 단위에서 더욱 세분화하고 가벼운 포장 단위가 적용돼야 하고, 단순하게 조리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개발과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파우치, 반가공 형태의 농산물도 개발돼야 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소비심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인 가구는 대개 자기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여는 계층으로 친환경 신선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웰빙푸드에 대한 소비 욕구가 어느 계층보다 강하다.

산지에서부터 타깃 시장 선점을 위해 유기농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건강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유통 단계에 있어서도 1인 가구의 소비 성향에 맞는 홈쇼핑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판매 강화는 물론 농산물 특성을 감안한 콜드체인 시스템, 택배 서비스 등 배송 단계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1인 가구, 싱글 컨슈머는 농산물의 소비시장 형성에도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농업은 참여형 농업을 활성화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 단계의 투명성을 갖추는 등 싱글 컨슈머의 소비패턴에 적용하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신인균 회장

(농협중앙회 회원(예제지원부 수출 교육팀)

"네파 연매출 5000억 목표"

새 아웃도어 브랜드 '이젠벅' 론칭 행사장서 김형섭 대표 밝혀

"이젠벅을 통해 새로운 하이브리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아웃도어 기업 네파가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브랜드 성장을 기념하는 '히스토리 쇼'와 신규 브랜드 '이젠벅'의 론칭 패션쇼를 진행했다.

네파 김형섭(작은 사진)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론칭 7년 만에 4600억 원의 연매출을 일궈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몰아 올해 매출 목표를 5000억 원 이상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네파는 새롭게 론칭한 이젠벅의 신규 매장을 올해 안에 100여 개 출점하고 신개념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을 개척,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2일 이젠벅 론칭 패션쇼에 참석한 걸그룹 씨스타의 효린, 다솜

이젠벅은 '도전'이란 콘셉트로 기존 아웃도어의 기술력에 입동성을 접목한 브랜드로 산행은 물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젊은 층을 겨냥했다. 기능성을 높이면서 필수 요소만 담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등산, 하이킹을 중심으로 한 '마운틴 하이킹 라인'과 러닝을 테마로 기능성을 강조한 '퍼포먼스 라인'을 선보였다. 브랜드 모델로는 가수 서인국과 아이돌 그룹 씨스타를 내세웠다.

이날 김형섭 대표는 최대주주 주식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네파는 최근 MBK파트너스로부터 약 5500억원을 받고 주식을 53% 넘긴다는 계약을 추진한 바 있다. 김 대표는 "MBK와의 계약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번 계약의 주목적은 네파의 글로벌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MBK가 보유한 강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네파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네파는 내년 초 중국에 직진출하고 미국, 유럽 등지 진출을 위한 M&A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jiy@metroseoul.co.kr

신원의 여성복 '비키' 야심찬 중국 진출

패션기업 신원의 여성복 브랜드 '비키'가 중국에 진출한다.

신원은 중국 정영복장무역유한공사와 여성복 브랜드 비키의 중국 내 15년간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회사는 5년 내 매출 1억4000만 위안(약 252억 원)을 올리고 320개 매장을 연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원 측은 "앞으로 비키의 유통망을 확장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해 중국 내 최고 여성복 브랜드로 키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신원은 지난해 12월 남성복 브랜드 지이크와 지이크 파렌하이트의 중국 내 20년 독점 계약 체결을 맺었다. /박지원기자

강강술래 한우세트 사면 알찬 경품

올리브유·화장품·책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 선물세트 구매 시 총 1300명에게 풍성한 사은품을 선착순 증정하는 한우 소비 촉진 및 축산농가 돕기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한우명품세트 1호 또는 2호 구매자 20명에게 산송식품의 프리미엄 버진 올리브유 '유니올리바 슈프레모 Do 선물세트(500ml 3병 4만5000원)'를, 한우갈비세트(한우갈비 3대+한우불고기 1.8kg) 구매자 60명에게 지자극성 청소년 전문 화장품 브랜드 쥬크(Jukel)의 올인원 화장품(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한우양념구이 선물세트 구매자 50명에겐 권용시 추천 도서(1만2000원 상당)를 주며 오는 28일 일괄 발송한다.

올해는 최대 64% 할인 판매 중인 설 선물세트 가운데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ml-5팩 10인분-2만2000원)와 대용량세트(900ml-5팩-15인분-3만7800원), 한우불고기1호(1.8kg-5만원)와 숯불양념갈비1호(16대 8만원) 등 10만원 이하 상품 판매량이 전체의 60%에 달해 저가 실속 선물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학을 맞아 자녀들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우 이광수와 송지효가 더빙한 코믹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해양경찰 마르코'를 볼 수 있는 영화 이벤트도 함께 벌인다. 2월 1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참여)에서 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티켓을 1인당 4매씩 증정한다. /전효순기자

탐욕이 부른 '경제쿠데타'

모피아 돈과 마음의 전쟁
우석훈 지음/김영사 펴냄

'88만원 세대' 저자 첫소설 모피아의 실체 간접 폭로

차기작에서 다룰 내용은 고3들의 '교육 쿠데타'

"클라이맥스의 폭발력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소설이 더 큰 것 같더라."

경제학자이면서, 첫 소설을 낸 우석훈(45)은 "텍스트는 읽는 사람이 (그 텍스트에 자신을) 투영해야 하는 상당히 적극적인 매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1일 그가 자문으로 있는 타이거픽처스의 서울 돈암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 책은 2014년을 배경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정권을 창출한 '시민의 정부'가, 속칭 '모피아'라 불리는 재정경제부 출신 인사들이 기획한 경제쿠데타로 인해 국권을 찬탈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제소설이다.

그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모피아와 금융, 그리고 한국 경제를 소설로 풀어낸 데에는 당초 기획한 영화화(2011년 가을, 이 이야기의 첫 기획은 시나리오였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쉽기 어려운 경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우석훈은 "금융은 어렵다. 한국은행의 존재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거의 없다. (이들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들이 경제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총리실에서 근무하던 시절,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모피아'의 실체를 폭로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진 권력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그 탐욕의 끝이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형태로 발현될지를 낱낱이 밝혀 소설로 형상화했다.

또 허구와 실재가 절묘하게 조합된 소설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냉철한 분석력과 정확한 예측이 문학적 상상력을 더해 실제 사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경제소설이지만 애정적인 드라마 플롯의 요소를 강화한 것도 독특한 재미를 더한다. 소설 속 주인공인 오지환이 수동적인 남성으로 표현된 것이 대표적인 장치다.

"소설 속의 남성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내재적인 힘이 폭발한 것이다." 오지환의 이름을 한국 LG트윈스 야구선수 오지환에게서 빌려 온 것도 깨알 같은 재미를 준다. "LG의 오지환은 지난해 에러왕이었다. 그런데 감독이나 팬들이 좋아한다. 실수를 많이 하는 캐릭터다."

실제로 오지환 선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홈런은 12개 치고 도루는 21개나 하고 안타도 100개 넘게 쳤지만... 삼진과 실책이 무성한 오지환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민주가 키웠던 시대는 갔고, 이젠 시민이 키워야 하는 시대"라고 대선 이후의 한국 사회를 정의하는 우석훈은 이 소설을 통해 시민들이 경제를 읽는 힘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 그동안 '88만원 세대'를 비롯한 경제 인문 서적 출간에서 소설이라는 또 하나의 소통 매개체를 획득한 그는 차기작으로 '교육'에 메스를 들이댈 예정이다.

우석훈은 "고3들이 수능을 거부하고 교육부에 들어가서 점거하고 대학 국유화를 이뤄낸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담아있는 이 이야기들이 소설화될 때 어떤 클라이맥스의 폭발력을 보여줄지가 궁금해진다.

/글·사진 김지민기자 sunband@metroseoul.co.kr

스포츠도 인생도…'돌직구'로 소통하라

화제의 책

대한민국 승부사들 우리시대 최고 감독 10인의 불꽃 리더십
고진현 외 7인 공저/토네이도 펴냄

멘토링 전성시대다. 사회 첫걸음부터 절망하는 청춘부터 직장에서 등 떠밀리는 오십대까지, 사람들은 따뜻한 치유와 위로의 손길에 목말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어떤 손길의 위로만이 아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라고 권하는 '돌직구' 같은 강한 목소리도 필요하다. 이 책은 국내 스포츠를 호령하는 김인식 등 최고의 명감독 10인이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승리의 방정식을 써내려가는 승부사적 기질과 리더십을 다른 책으로 독자들에게 도전과 돌파의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준다.

이 책의 저자는 8명이다. 이들 가운데 이동훈 울산 모비스 농구단 사무국장을 제외하고는 현직 기자들이다. 이동훈 사무국장도 7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이 책에서 생생한 승부의 순간에서 발휘되는 명장들의 판단과 선택, 그 승부를 위한 치밀한 준비와 선수단과의 소통을 구체적 사실을 통해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기자와 감독이란 든든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명장들의 명승부 뒷이야기는 이 책이 주는 또다른 즐거움이다.

이 책에 소개된 리더십은 일상에서 더 빛을 발한다. 명장들이 말하는 리더십은 다양하다. 명장들은 하나같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그러나 디테일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명장들의 각기 다른 리더십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스타일, 주변 환경에 맞춰 일상에서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김지민기자

새로 나온 책

내가 나에게 미안해
문정 지음/책보자기 펴냄

이번에 출간된 '내가 나에게 미안해'는 경기 불황, 입시의, 청소년 문제, 실직, 부부 갈등, 자녀 학대, 학교폭력, 은둔형 외톨이, 성범죄, 불안, 강박증 등으로 심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사회 상황의 본질을 뒤돌아보게 하고 그 해결책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심리책이 가질 수 있는 막막한 선입감을 털끝히 없애고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제목 '내가 나에게 미안해'와 부제 '자기 독려 시대의 심리적 성찰'을 비롯해 콘텐츠를 일목요연하게 나누어 읽기가 쉽다.

간결하면서도 독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용 구성에다 만화 사를 곁들여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구체적인 내담자의 사례를 담았기 때문에 한번 읽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습을 그 속에 대입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흥미진진하다. 책을 한번 들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재미있게 편집한 것이 큰 장점이다.

왕들의 부부싸움-조선의 운명을 결정한
이상주 지음/예문북스 펴냄

침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왕과 왕비들도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을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 막장이라 불릴 만한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다. 왕들의 부부싸움이 국가 단위의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고, 반대로 정치적 쟁점이 부부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 책은 조선의 임금 왕의 역사를 통해 인간적인 왕과 왕비의 모습을 발견하고, 역사적 사건의 배경까지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역사 대중서다.

스페인역사 다이제스트 100
이강혁 지음/가람기획 펴냄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우리가 기억해두어야 할 중요한 100장면을 가려뽑은 가람기획의 '다이제스트100' 시리즈 열한 번째 책이다. 정열과 태양의 나라, '돈 키호테'와 '게르니카'를 낳은 나라, 기독교와 이슬람이 정면충돌하고 공존했던 나라,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하여 제국주의의 선봉에 섰던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스페인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보인다.

여풍당당 박근혜- 위기에 강한 리더십
최대우·최구철 지음/행복에너지 펴냄

이 책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을 실천하고 있다. 선거 시즌마다 쏟아지는 의미 없는 박근혜 관할하기와는 전혀 다른 매력으로 읽힌다. 이 책은 박근혜와 일견 무관해 보이지만 긴밀한 선으로 이어지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담아내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박근혜의 현주소를 넓은 시야로 포착하고 있다.

글로벌 챌린저 할빈의 황왕 다이아몬드
할빈 리 지음/행복우물 펴냄

할빈은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업계에 뛰어들어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을 이해하고자 노숙자, 학원 강사, 택시 운전 등의 삶을 체험하기도 했다. 마침내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겸임교수가 돼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에 다이아몬드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합의를 도출해낸다.

벌거벗은 재벌님 최상민 지음/창작 펴냄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감히 재벌들의 치부를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많은 편견과 그릇된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재벌 그룹들의 불법, 탈법, 편법적인 세습과 그룹 장악, 그리고 탈세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을 냉철한 논리로 신랄하게 고발한다. 또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선결 조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
이인철 지음/북라이프 펴냄

MBC, KBS, SBS, MBN 등 다양한 방송 출연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각광받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사랑과 행복에 대한 확신으로 출발했던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만 끝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한다. 수많은 이혼 상담의 자문적 경험을 토대로 '가장 솔직하고 가장 도움되는' 이혼 이야기들을 모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드라마 '궁중잔혹사' 캐스팅

송선미가 JTBC 새 주말특별기획 드라마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에 캐스팅됐다.

극중 연희빈 강씨 역을 맡아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한다. 송선미는 "신인의 자세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선시대 사랑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여인들의 궁중 암투를 다룬 이 작품은 '무자식 상팔자' 후속으로 방송된다.

남예종 특임교수로 임용

로맨의 신용재가 남서울예술종합학교 특임교수에 임용됐다.

신용재의 이번 임용은 그의 스승이자 최근 동대학 실용음악학부장이 된 윤민수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뤄졌다. 다음 학기부터 보컬 전공 학생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한편 포맨은 28일 1년7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 '실화'를 발표한다.

오리콘 12회 1위 '새 역사'

동방신기가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또 한 번 해외 아티스트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16일 발표한 싱글 '캐치 미-이프 유 워너'로 한 주 동안 13만7000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2번째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안드로이드'로 세운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지금까지 싱글 판매량은 총 326만4000장이다.

'장옥정'서 김태희의 남자

배우 유아인이 드라마 속에서 김태희의 남자로 변신한다.

22일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인은 3월 방송될 SBS 새 드라마 '장옥정, 사랑에 살다'의 남자 주인공 숙종 역으로 출연을 확정했다.

극중 장옥정 역의 김태희와 애틋한 사랑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운 4번째 미니 앨범 'Re BLUE'로 1년여 만에 돌아온 씨엔블루. 왼쪽부터 강민혁(드럼), 정용화(보컬·기타), 이정신(베이스), 이종현(보컬·기타).

"우리의 음악 색깔은 무한대"

씨엔블루 '리 블루' 들고 1년 만에 돌아왔다

4인조 밴드 씨엔블루가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1년여 만에 돌아왔다.
14일 발매한 4번째 미니앨범 'Re BLUE'에서 6곡 전곡을 자작곡으로 채우며 밴드 색깔을 강화했고,
사운드와 퍼포먼스에서도 남성적이고 강렬해졌다.
새 앨범으로 인기몰이 중인 이들을 최근 새로 지어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사옥에서 만났다.

 # 다양한 장르 담긴 자작곡

이전에도 앨범에 멤버의 자작곡을 실었지만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건 처음이다. 정용화가 세련되고 강렬한 모던록 장르인 타이틀곡 '아임 쏘리'를 비롯해 '커피숍' '나란 남자' '라라라' '웨어 유 아' 등을 만들었고, 이종현이 '나 그대보다'를 작곡했다. 이번 앨범에는 모던록 외에도 힙합, 디스코록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이 수록됐다.

"주로 숙대 커피숍에 있으면서 곡을 쓰고, 작업실로 가서 믹스나 마스터링을 확인하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숙대 커피숍'이란 노래는 이렇게 탄생한 곡이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데뷔곡 '외톨이야' 때문에 우리 이미지를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 록은 물론 댄스,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미웠 것 같아요." (정용화)

 # 앨범 나오자마자 차트 1위

일단 시도는 성공적이다. 타이틀곡이 앨범 발매 첫날 각종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고, 컴백 무대에서 선보인 강렬한 올라이브 퍼포먼스는 화제를 모았다. 정용화는 "그동안 혼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번 멤버들이 다들 맡아서 잘한다"고 동생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종현은 "예전엔 우리의 라이브에 대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반신반의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젠 인정해준 것 같아 기쁘다"면서 웃었다.

그러나 얼마 전 개그맨 박명수가 MBC '무한도전'에서 발표한 '강북멋쟁이'의 돌풍에 밀려 아쉽게 2~3위로 내려앉았다. '강북멋쟁이'가 최근 TV 노출을 앞세운 이벤트성 음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담담했다.

"얼마 전에 명수 형을 만났을 때 '우리 앨범이 나오는데 형 노래가 너무 센 것 아니냐?'고 농담했더니 형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우리 순위가 내려갔다고 기분 나쁘지 않아요. 대중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뿐이잖아요. 우리도 박명수 형의 노래를 따라부를 정도니까요. 장르가 많아지는 건 좋은 일 같아요." (정용화)

 # 가수·연기자 둘 다 열심히

앞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넌 내게 반했어'에 출연한 정용화에 이어 지난해에는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연기자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현과 강민혁은 각각 히트작 '신사의 품격'과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신고식을 치렀고, 이정신은 현지 시청률 40%를 돌파한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에서 성재 역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정신은 "솔직히 음은 힘들지만 형들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기에 마음은 행복하다"고 소감을 털어놨다. 강민혁은 "극중 호흡을 맞춘 오연서와는 가끔 보면 인사한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이종현은 "음악하기에도 바쁜데 연기까지 어떻게 하느냐'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둘 다 열심히 하게 된다"고 좋은 시선으로 봐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화는 동생들의 말에 "우리끼리 모니터를 하면 일부러 이상한 장면만 골라 캡처해 카카오톡으로 공유한다. 슬픈 장면도 웃기게 만들곤 한다"고 장난끼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내 "내 작품과 비교하면 민혁이와 정신이가 출연한 드라마의 시청률은 압도적이더라. 동생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하다"고 기특해했다.

 # 4월부터 데뷔 첫 월드투어

4월부터는 데뷔 후 처음으로 월드투어에 도전한다. 대만·싱가포르·태국·중국 공연을 확정했고, 추후 미국·유럽·남미로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월드투어는 국내 밴드를 통틀어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씨엔블루는 지난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 라이브 공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우린 아직 어려서 2~30년은 더 음악을 할 텐데 지금 장르를 정해버리면 슬프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색깔이 없다고 말하는데 앨범마다 다른 게 우리 색깔이죠." (이종현)

/박진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FNC엔터테인먼트 제공 디자인/동직형

김주혁 "허준은 나의 운명"

아버지 이어 주인공 연기

MBC 특별기획드라마 '구암 허준'의 주인공에 배우 김주혁(사진)이 캐스팅됐다.

그는 캐스팅 소식과 함께 "허준은 나의 운명"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앞서 그의 아버지 고 김무생 역시 1975년 일일드라마 '집념'에서 주인공 허준을 맡은 바 있다.

1999년 방영된 전광렬 주연의 '허준'을 리메이크한 이 작품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다룬다. MBC 관계자는 "주요 등장인물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고 극적인 장면들을 추가해 전작과 차별화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1월 말 주요 배역들의 캐스팅을 완료하고 3월께 첫 방송을 시작한다.

/연보람기자 [illegible]

'아이리스2' 장혁 대역 없이 고난이도 액션

배우 장혁이 다음달 13일 첫 방송될 KBS2 새 수목극 '아이리스 2'에서 고난도 액션을 펼친다.

22일 제작진에 따르면 극중 NSS(국가안전국)의 TF-A(테스크포스 에이) 팀장 정유건을 연기하는 장혁은 다양한 현대의 무술을 구사하면서 위험한 촬영을 대역 없이 소화해내고 있다.

장혁은 "첩보 액션에 걸맞는 민첩한 움직임과 호흡 조절, 표정 변화, 시선 처리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촬영에 임하는 소감을 덧붙였다.

/탁진현기자 tak0427@

"오빤 삼바 스타일"

싸이 다음달 열리는 브라질 카니발 축제 무대 올라… 본격 남미 공략

싸이의 열풍에 남미를 뒤덮는다.

'강남스타일'로 북미와 유럽, 아시아를 강타한 싸이가 다음달 9~12일 브라질 카니발 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남미 공략에 나선다. 13일 브라질 글로보TV '판타스티코'에 출연해 현지 방문 의사를 밝혔던 싸이는 현지 톱 여가수 이베치 상갈로와 합동 공연 등으로 열정적인 남미 팬을 사로잡는다.

싸이는 '판타스티코'에 출연해 "2월 열리는 브라질 카니발 축제에서 '오빤 삼바 스타일'을 부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MBC '가요대제전'에 출연해 "국내 팬들은 '강남스타일'을 시골처럼 우려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야 변곡이 오는 나라도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그렇다"고 활동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싸이의 말처럼 '강남스타일'은 출시된 지 6개월이 됐음에도 22일 브라질·아르헨티나·니카라과 아이튠즈 싱글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에콰도르·엘살바도르·베네수엘라·코스타리카·칠레 등 남미 주요 국가의 아이튠즈에서는 2~3위에 오르며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다.

한편 싸이는 이에 앞서 26일 프랑스 칸에서 라디오 음악 채널 NRJ가 주관하는 음악 시상식 'NRJ 뮤직 어워즈 2013'에 출연한다. 그는 올해의 국제 신인, 올해의 국제 노래, 올해의 비디오 등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3월께 첫 월드 와이드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 그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잘빠진 액션물…반전은 없네

film review

■베를린

류승완 감독이 '베를린'을 연출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같은 고전적인 느낌의 첩보 스릴러가 나오리라 어렴풋이 짐작했다. 3년 전 '부당거래'에서 '액션 키드'가 아닌 이야기꾼으로서의 근사한 자질을 새로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베일을 벗은 '베를린'은 당초 예상과 달리 '본' 시리즈처럼 때깔이 잘 빠진 액션물이었다. '부당거래' 이전까지 우직하게 액션 장르 한 우물만 파왔던 류 감독의 오랜 집념이 비로소 만개한 듯하다.

북한 최고 첩보원 표종성(하정우)은 남한 국가정보원 요원 정진수(한석규)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아랍 무기상들을 상대로 한 무기 밀매가 실패로 끝나자 책임자인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 리학수(이경영)와 함께 곤경에 처한다.

북한 군부 핵심의 아들로 대사관을 접수하러 베를린에 온 동명수(류승범)는 표종성에게 대사관 직원인 아내 연정희(전지현)가 배신자라고 귀띔한다.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표종성은 믿고 따르던 리학수가 미국 대사관에 망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뒤 그를 붙잡아 동명수에게 넘기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첩보물만의 뒤통수를 치는 반전은 아쉽게도 없다. 줄거리를 음미하며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구석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톱니구처럼 날아가는 줄거리의 허점을 메우는 쪽은 역시나 액션이다. 베를린 시내에서의 추격전과 실내 총격전, 갈말부의 일대일 맨몸 격투 장면 등은 할리우드를 비롯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출중하다.

다만 표종성의 건물 추락과 착화 장면 등 일부 대목은 액션을 사랑하는 감독의 오랜 취향이 너무 진하게 반영되다 보니 살짝 리얼리티가 떨어져 과하지 않나란 인상도 남긴다. 31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또디

by 정연석

<579>그냥 주고 말지

wind8686@naver.com

모두 드리리 혼 담은 노래

이장희 첫 전국투어

가수 이장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히트곡을 열창하고 있다.

1970년대 큰 인기를 얻은 가수 이장희가 데뷔 40년 만에 첫 전국투어를 개최하는 벅찬 소감을 전했다.

그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욕심보다는 60세가 훌쩍 넘은 남자가 노래에 푹 빠져 즐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내 마지막 공연이라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72년 '그애와 나랑은'으로 데뷔한 그는 1975년 대마초 파동으로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라디오 DJ 등 스튜디오 활동을 주로 했었다. '한 잔의 추억' '그건 너'와 같은 빅 히트곡을 정작 본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10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2011년 MBC '무릎팍도사'와 '놀러와-세시봉 특집'에 출연해 전성기 이상의 인기를 확인했다.

"2년 전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가수였다는 것도 잊고 살았어요. MBC에서 제 관이 많다면서 TV 콘서트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믿을 수 없었죠. 누가 40년 전 노래를 기억할까 걱정했는데 막상 하니 즐겁더라고요."

그는 3월 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국투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의 서막을 열고 부산·대전·대구·전주에서 차례로 공연한다. /유순호기자 suno@

충무아트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자체 제작

충무아트홀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자체 제작한다.

충무아트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순수예술 지원 증대, 공공·고급성 강화, 뮤지컬 제작 등을 축 진행할 야심찬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김희철 충무아트홀 공연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프랑켄슈타인'을 대극장 무대에 올리는 것이다. 1818년 영국 작가 메리 셸리가 발표한 이 작품은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물리학자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 욕망과 불안을 긴장감 넘치게 담아냈다.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영화와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여왔지만 뮤지컬로 제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철 충무아트홀 공연부장은 "스릴러 뮤지컬인 '잭더리퍼' '캐치 미 이프 유 캔' 등을 연출한 왕용범씨와 2년 가까이 작업을 해왔다"며 "2월중 대본이 나올 것 같다. 괴물이 아닌 꽃미남 프랑켄슈타인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시장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선택했다. 내년 대극장 공연이 끝나면 3년간 지방투어를 돌며 업그레이드해 2016년부터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준기자 mkim@

캣우먼

이 핑계 저 핑계 일 떠넘기는 워킹맘
확살하게 거절해야 당신 이용못해

Q Hey 캣우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같은 직위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안 했고 그녀는 세 살 짜리 아이를 두었지요. 물론 아기 맡아가 기사나 육아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같은 여자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날 어린이집의 행사나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를 하거나 회사를 안 나오거나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다 업무 뒷처리 등을 저에게 떠넘기곤 합니다. 처음엔 안 돼 보여서 같은 여자로서 도와줬더니 은근 말로만 미안하다 하고 어린지만 아이 관련 핑계를 대면서 일을 넘기는데 죽겠습니다. 출산과 돌잔치 선물을 주고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줘야 하는 건지요. /애기 버슴이니

A Hey 애기 버슴이니! 애 낳고 일하는 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찔리는 감이 없지 않네. 난 원래는 절대 안 그러지만 가끔 나가기 싫은 모임 있을 때 시댁이 돌렸다거나 애가 아프다는 핑계를 댔지. 그나저나 그 워킹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애가 있어도 없어도 비슷한 짓을 할 타입의 인간이야. 상대의 연민과 관대함을 믿고 자기 일을 떠넘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지. 애 문제는 옆으로 치워두고 그 사람의 인간성을 냉정하게 살펴봐.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는 책임감 있는 워킹맘이라면 어떻게든 자기 일은 스스로 처리를 할 것이고 미안하다는 말도 쉽게 넘기진 못하지. 애가 있든 없든 치사한 인간은 어차피 치사해. 하지만 마찬가지로 쉽고 편리한 동료가 되어주는 당신도 문제. "그건 못하겠어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안 그러면 계속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테니까.

어디 보자. 그녀가 '아이'라는 카드를 쓴다면 당신은 '지병'이나 '생리통'이나 아니면 '아픈 부모'라는 카드를 써. 거짓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임. 내가 완강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인간이 당신을 이용하려들 거야. 그걸 못하면 평생 회사에서 남 뒤치다꺼리 역할하다 갈 나. /캣우먼

날씨

1/23 水 일출시각 07:42 일몰시각 17:4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8.co.kr

서울 1/5 · 청주 -1/4 · 대전 0/4 · 전주 1/4 · 광주 2/8 · 제주 5/7 · 강릉 -3/5 · 울릉도 8/5 · 대구 0/8 · 포항 2/7 · 울산 1/7 · 부산 4/8

날씨가 춥니고 지나치게 높은 온도의 물에서 목욕을 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건조한 겨울엔 목욕 후 반드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전식지수 ·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200.com

도자기 가업을 이어받고 싶은데 창조적 작품으로 승화하면 대박

배두산산 남자 81년 9월 3일 음력

Q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부모님께서 도자기를 하십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해 가격도 좋아지고 찾은 품으로 쳐줬습니다. 좀 더 나아가 제가 작품으로 승화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힌드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 운이 없다면 욕심내지 말고 부모님 가업을 그대로 이어갈까 합니다.

A 귀하는 암록(暗祿)이라 재물의 공망함이 열고 좋은 음덕이 있습니다. 현처(賢妻)를 맞이하여 처덕(妻德)이 두텁고 애정이 좋으며 부모의 가업을 이어 옮는 것도 순탄합니다. 앞으로 운의 흐름이 무토(戊土) 생일간이 남방권으로 기으로 가업을 이어받으면서 기술이 숙달되면 창조적인 제품으로 승화하여 대기만성(大器晩成)하게 됩니다. 일출동산(日出東山) 해가 동쪽 하늘에서 올라오는 이치하여 처음에는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는 대성하는 길조가 있으며 조상 자리에 천덕귀인(天德貴人)의 상으로 조부모의 덕도 있습니다. 첨그릇으로 시작하여 용알오름이 조합된 예술품목 개발을 하십시오. 2013년 7월은 교통사고를 유의하세요.

개와 함께 고양이 키워도 될까요 당신에겐 그 둘이 맞지않는사주

zkvpomahd 여자 74년 4월 7일 음력

Q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고 조그만 가게(제빵업)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식구삼아 생상아 키우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고양이 새끼를 주겠다합니다.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워도 되는지 제가 초탕이어미아니 고양이를 한 집에서 키우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네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A 애완견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기에 개나 고양이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도 사주팔자가 있으며 불교에서는 전생의 인연으로 현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 자리에 흉살(凶殺)을 받듯이 흉한 작용하여 무자식 상팔자라는 사주이고 애완견이 정을 두고 살게 됩니다. 2013년 등물로 건해 지출이 많게 되고 6월 직장을 고만둘 것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지 않는 것이 귀하에게 맞습니다. 굳이 키운다면 새끼 고양이부터 키우면서 강아지의 생활하는 것을 적응시켜야 하는데 2013년 음력 4월 고양이는 집을 나갈 것이니 고양이 방을 따로 정해놓고 강아지는 못 들어가게 하여 같이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응익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3일 (음 2012년 12월 12일) 김학수 인생상담 02)577-1541

쥐 48년생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60년생 변화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72년생 귀인의 도움이 성과로 나타난다. 84년생 상승생승한 마음 잘 다스려라.

소 49년생 백두지와 옛벗자 처지 될도록~ 61년생 서두르면 계획은 어긋난다. 73년생 중대한 선택의 기로서 고민하는 날~ 85년생 극소라 나는 빛이 있어 든든하다.

호랑이 50년생 염려했던 일은 무사히 넘긴다. 62년생 운세가 좋려 거칠것 없는 질주~ 74년생 친구와 손잡으면 시너지 효과 돈다. 86년생 나태한 마음을 철저히 단속할 것.

토끼 51년생 한 가지 통에만 집중할 것. 63년생 오버하면 본전도 못 찾는다. 75년생 자신감 넘쳐도 살지는 인생 주저 마라. 87년생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생긴다.

용 52년생 오난 돌이 정을 깰는 법이다. 64년생 좋은 운시가 들어오니 잡아라. 76년생 다 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니 근 그릴만 그려라. 88년생 과한 의욕은 화를 자초한다.

뱀 53년생 동서쪽에 좋은 소식 있으니 기대하라. 65년생 서두르면 뻐막 귈이 선다. 77년생 고민하던 일이 전혀위복되어 아호~ 89년생 빛나는 성과로 승영처 치른다.

말 42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골칫 전다. 54년생 방황하던 지나가 마음잡으니 태평성대~ 66년생 처음은 좋으나 끝에는 몰는다. 78년생 벗어 쓰다 달다 할여 끊다 폭을~

양 43년생 우 지르릇 날심한 거품은 삼가라. 55년생 하나를 잃고 콜를 얻는 격이다. 67년생 허우자 어둠 하아라는 데 신중 써라. 79년생 씨앗을 뿌리어 소득이 생긴다.

원숭이 44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라 선물한다. 56년생 추진 중인 계획은 탄력이 붙을 듯. 68년생 청개구리 발상이 필요한 날이다. 80년생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닭 45년생 소화가 계통 질환 조심~ 57년생 논란이 되는 일은 포기하는 게 좋다. 69년생 화창한 물날이 오나 궁을 들저라. 81년생 막혔던 진로는 새 길이 드인다.

개 46년생 답답한 가슴은 확 뚫린다. 58년생 갈 길이 멀어도 페이스 조절은 할 것. 7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바라던 일감을 줍는다. 82년생 멋진 이성과 마주하니 기대하라.

돼지 47년생 단것이 몸 에 해로운 듯~ 59년생 좀인지 생시인지 싶은 경사가 생긴다. 71년생 술자리서 실언 않도록 조심할 것. 83년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도 좋다.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2 Do you speak English? 언어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이 서포트합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영어를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이요.
그녀의 영어는 나쁘지 않아요.
그는 한국어식 억양으로 영어를 말해요.
저는 발음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Do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Her English is not bad
He speaks English with a Korean accent
I have a lot of trouble with pronunciation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Do you speak English very well?
B Not really. I have a lot of 어려움 with pronunciation

정답 trouble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Do you speak [English / Chinese]?
2 Yes, I do. I speak [fluent / a little] English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 자주 나오는 동사 어휘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관련표현과 함께 익혀 두세요.

influence	동 영향을 끼치다 명 영향(력)	influence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다
offer	동 제안하다, 제공하다 명 제공	offer her a job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다
reduce	동 줄이다, 인하하다 reduction 명 축소	They must reduce their price 그들은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return	동 돌아가다, 반납하다 명 귀환, 반납	He won't return to the office until next Monday 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야 사무실로 돌아간다
rush	동 서두르다, 급히 가다 명 붐빔, 쇄도	rush to buy discount products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서두르다
schedule	동 일정을 잡다 명 일정(표)	The banquet is scheduled for Friday, June 5 연회는 6월 5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7번 문제 유형 파악하기

• Where 의문문 유형: "~은 어디서 열리나요?"

행사가 열릴 장소에 대한 정보를 묻는 질문 유형이다. Where에 해당하는 장소를 차트 상에서 찾아서 응답한다. 장소 정보는 대부분 차트 상단에 제시되어 있다.

Q **Where** does **the meeting take place**? 회의는 어디에서 개최되나요?
의문 포인트 / 질문의 대상

A It will take place / in the conference room / at the Hampton Hotel.
핵심 답변
그것은 햄튼 호텔의 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영어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작은 장소 → 큰 장소' 순서로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238-96 번지를 영어식으로 나열하면 '238-96번지 신사동 강남구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이 된다.

The employee workshop will be held in the auditorium at the Star Building.
직원 워크숍은 스타 빌딩의 강당에서 열릴 것입니다.

The orientation will take place in the conference room at the Seattle Headquarters.
오리엔테이션은 시애틀 본사의 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샤라포바 이 표정 뭐니?"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가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테니스 여자단식 8강전에서 에카테리나 마카로바의 강력한 서브를 포핸드로 받아치고 있다. 이날 샤라포바는 마카로바를 2-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상대는 아그니에스츠카 라드반스카를 2-0으로 꺾은 '러시아의 자존심' 리나다. /AP 뉴시스

최고급 수트·맞춤형 개인장비·트레이너·고가 엑세서리까지

WBC 특급지원 입이 '쩍'

최고급 수트, 고가 엑세서리, 개인 장비 등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에 역대 최고의 지원품이 제공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태극마크를 달고 야구 최강국 결정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훈련 지원, 숙소, 복장 미팅 등 세심한 부분에 정성을 쏟고 있다.

우선 선수단 단복을 최고급 정장으로 준비했다. 1~2회 대회 때와 달리 양말, 구두, 벨트까지 세트로 맞춰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나이키사가 제작한 야구용품 이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방망이와 글러브를 KBO에 요청할 수 있다. 또 각종 업체의 후원을 받아 야구용품 이외의 고가 패션 액세서리 제기지 세트를 제작해 선수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다음달 12일부터 2주간 대만 자이현 도류구장에서 열리는 전지훈련에서도 특별한 지원이 이어진다.

인천 문학구장과 비슷한 천연 잔디와 신식 시설을 갖춘 도류구장을 직접 섭외했고, 야외에 별도로 두 수들이 어깨를 풀 수 있도록 불펜 2개를 새로 지었다. 선수단 숙소에는 한국처럼 무선 인터넷이 잘 터지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미리 와이파이망을 새로 깔았다.

1~2회 대회 때 트레이너를 3명씩 데리고 갔으나 선수들 몸을 완전히 풀어주기에는 부족했다는 진단에 따라 트레이너도 5명으로 늘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기성용 EPL랭킹 수직상승

9계단 뛰어오른 165위 ― 박지성 296위 하락

기성용(스완지시티·사진)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수랭킹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22일 공개된 2012~2013 EPL 선수랭킹에서 기성용은 164점을 획득해 165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174위에서 9계단이나 뛰어올랐다. 20일 스토크시티전에서 시즌 3번째 도움을 기록한 기성용은 이번 시즌 리그 19경기에 나서며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퀸즈파크레인저스의 박지성은 순위가 7계단 하락하며 296위에 그쳤다.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로빈 반 페르시(맨유)가 변함없이 1위에 오른 가운데 후안 마타(첼시)와 파트리스 에브라(맨유)가 뒤를 이었다. /김민준기자

크로아티아 정예멤버 선발
내달 6일 최강희호 평가전

'최강희호'와 다음달 6일 평가전을 치르는 크로아티아가 정예 멤버를 꾸렸다.

크로아티아축구협회는 22일 홈페이지에 한국과의 경기에 나설 선수 26명을 발표했다.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 마리오 만주키치(바이에른 뮌헨), 니코 크란차르(디나모 키예프)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고르 스티마치 감독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선수가 아직 경기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위인 크로아티아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럽지역 최종 예선 A조에서 벨기에(승점 10·골득실 +7)에 이어 2위(승점 10·골득실 +4)에 올라 있다. /김민준기자

선동열 감독의 지피지기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가 나다 감독 대 선수 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선동열 KIA 감독의 행보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친정팀 사령탑으로 금의환향했으나 4강 탈락의 쓴맛을 보았다. 최강 삼성을 가꾼 지도력에 커다란 흠집을 입었다. 올해는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패인 분석이 나왔다. 우선 표방했던 '지키는 야구'가 되지 않았다. 주전투수들의 줄부상으로 중간진이 무너졌고 덩달아 수비도 흔들렸다. 공격에서는 중심 타선이 붕괴되어 연결야구가 번번이 끊겼다. 1년 내내 서로 아귀가 맞지 않고 헛돌았다.

이것이 패인의 전부였을까. 선 감독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고 자인했다. 지피(知彼)는 몰라지고 지기(知己)에 실패했다는 것이었다. 상대를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을 모른 상태에서 싸움에 뛰어든 장수였다. 결과는 지만했다.

여기에는 선수들의 기술이나 실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인성과 심리적 특성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도 선수들의 심리과 인성을 파악해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 선 감독이 1년의 짧지 않은 시간을 내주고 얻은 답이었다.

부임 2년째를 맞아 이제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권위를 버리고 선수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 작은 문제를 일으켰던 최희섭을 대하는 방식도 지난해 같으면 제재를 내렸다면 올해는 달래는 쪽으로 선회했다. 최희섭이 직접 찾아가 눈물까지 흘릴 정도였다.

선 감독은 범접하기 힘든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젠 지기(知己)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다. 아마도 올 들어 KIA가 가장 달라진 점이 아닌가 싶다. 무릇 감독과 선수들의 신뢰가 두터운 팀은 강해진다. 그리고 그 열쇠는 감독이 쥐고 있다. /OSEN 이선호기자